

“금남로가 거대한 무대로”...다양한 볼거리 가득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행진의 날 I’

총장 K·O 퍼레이드에 시민 발길 북적
전국 20개 팀 공연·13개 동 주민 행진
복고풍 패션쇼·태권도 시범 등 박수갈채
임택 청장 “글로벌 대표 축제 성장시킬 것”

“과거와 현재가 만난 듯한 다채로운 무대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동구 금남로 일대.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 축제 나흘째를 맞아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도로 양옆이 북적였다.

평소 차량이 오가던 도로는 이날만큼은 거대한 야외 공연장으로 변했다.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방문객들은 주먹밥과 닭꼬치, 떡볶이 등 추억의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행진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행진의 날 I’인 이날 퍼레이드는 오후 5시 ‘총장 K(Korea) 퍼레이드’와 오후 7시 ‘총장 O(Original) 퍼레이드’ 등 두 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막을 올린 K 퍼레이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개 팀이 댄스와 전통공연, 치어리딩, 무술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형형색색의 도트 무늬 원피스와 복고풍 선글라스를 착용한 ‘해피니스모델협회’는 1970~1980년대 분위기를 재현한 패션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대경대학교 꽃피우리’는 동양무술과 기계체조를 결합한 마살아트 공연을 펼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김민희(40대·여)씨는 “정말 광주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다”며 “인파가 많지만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그나마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총장O퍼레이드’가 열린 지난 10일 전남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지역 13개 동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상징물과 의상을 선보이며 음악에 맞춰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이어 오후 7시께 시작된 O 퍼레이드에서는 동구 13개 동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행진이 펼쳐졌다. 특히 각 동 주민들이 저마다 특색을 살려 꾸민 행진이 눈길을 끌었다. 화려한 조명이 금남로를 비추는 가운데 도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고, 각자 주제에 맞춰 의상을 갖춘 공연팀이 춤과 퍼포먼스를 펼치자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장면을 담았다.

또 형광 조끼를 입고 응원봉을 흔드는 참가자부터 조룩색 의상을 맞춰 입고 군무를 선보이는 주민들까지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이어졌다. 꽃으로 장식한 대형 조형물이 등장하자 관람객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5살 딸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정모(40대)씨는 “노래 선정부터 동서양과 과거·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까지 아이도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며 “매년 퍼레이드를 기다리

며 축제장을 찾는데, 올해는 공연 시간이 길어서 특히 알찼다”고 웃어 보였다.

다만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롯데월드 퍼레이드팀이 올해는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김수진(20대·여)씨는 “지난해 롯데월드팀의 공연이 인상적이었다”며 “올해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지만 참여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는 11일 닷새간 일정을 마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구는 올해 축제를 통해 음악을 매개로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 참여와 국제 문화교류를 결합한 글로벌 거리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전국·주민 퍼레이드를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강화하고, 시민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총장 축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동구는 이번 축제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분석해 내년에는 ▲일자별 대형 이벤트 강화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퍼레이드 콘텐츠 고도화 ▲도심상권 연계형 콘텐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누군가에게는 청춘의 설렘이,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이 담긴 노래들이 도심 곳곳에 울려 퍼지며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냈다”며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함께해 주신 시민과 관광객,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축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인이 함께 웃고 감동하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거리축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찬웅·서형우 기자

“아시아 인권탄압 중단·활동가 석방하라”

5·18기념재단과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아시아 각국의 인권탄압 중단과 수감 중인 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NLG)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태국과 홍콩 당국은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아논 남파와 자투팻 분팻타라락사, 초우 항 텅을 즉각 석방하고 이들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조건 없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태국·미얀마·홍콩을 비롯한 세계 여

러 지역에서 인권옹호자와 정치수감자,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수감과 폭력,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얀마에서는 민간인들이 군사폭력과 인도적 지원 제한으로 고��받고 있으며 정치수감자들은 여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논 남파와 자투팻 분팻타라락사, 초우 항 텅은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인 활동으로 수감돼 있다”며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각자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수호

5·18재단·광주인권상 수상자 공동성명
태국·홍콩 수감자 3명 혐의 철회 요구

해 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국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는 왕실모독죄로 총 31년9개월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태국 학생운동 지도자 자투팻 분팻타라락사도 왕실모독죄 등으로 총 9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홍콩 인권변호사 초우 항 텅은 지난달 11일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7년3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그는 최근 법정 최후진술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억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한 시민들의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을 기소하거나 구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한다”고 밝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불의에 맞서 기본적 자유를 수호하는 이들의 용기가 바로 1980년 시민들이 보여준 오월정신이자 광주인권상이 기리고자 하는 가치”라며 “이들이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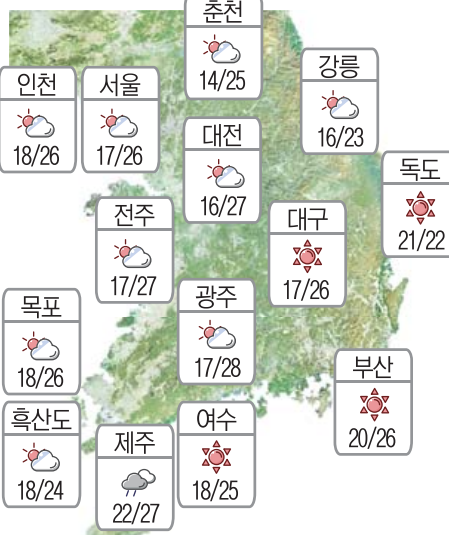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6 해질 18:02 🌙달돋이 08:02 달질 18:34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17/28	장성	구름조금	16/27
목포	구름조금	18/26	보성	맑음	15/25
여수	맑음	18/25	함평	구름조금	16/27
나주	구름조금	16/27	순천	맑음	17/26
완도	맑음	19/25	영광	구름조금	16/27
구례	구름조금	14/27	진도	구름조금	18/25
강진	맑음	18/25	흑산도	구름조금	18/24
해남	구름조금	18/26	고흥	맑음	18/25
광양	맑음	18/26	담양	구름조금	16/27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0.5	0.5-0.5
	면바다(북)	0.5-1.5	0.5-1.5
	면바다(남)	0.5-1.5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동)	0.5-1.5	0.5-1.5
	면바다(서)	0.5-1.5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2:52	08:03	여수	09:55	03:22	동동	10:34	04:24
	15:23	20:29		21:54	15:52		22:30	17:01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80

세 차 8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50

야외조경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주간 날씨

13일(화)	14일(수)	15일(목)
(19/23) 흐려져 비	(13/21) 맑음	(9/24) 맑음
16일(금)	17일(토)	18일(일)
(10/24) 맑음	(13/24) 구름조금	(13/24) 구름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어머의 마음을 만나다

말바우시장은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말바우시장’이라는 이름은 말 발자국 모양의 바위(말바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그 말바위는 없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사이 골목을 중심으로 정자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광주시 북구청으로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최근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 “골목형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계속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담양, 곡성, 장성, 화순, 순창 등의 주변 시군에서 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생선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전통작거래 장으로 보다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구분 : 인정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0-1
개설일 : 공식등록일 2005년

·점포수 : 507개소
·주요취급품목 : 수산·건어물, 농산물, 식품·음식점, 축산·건강원, 의류·기타
◆말바우시장 상인회 : 062-262-4082

·시장면적 : 68,712m2(20,685평)

귀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마음
살가운 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는
1석 3조
혜택을 누리보세요~!

혜택1
대형마트보다
20%나 저렴!

혜택2
온누리상품권
5% 추가 할인!

혜택3
사용금액
40% 소득공제!

착한가격!

신선한 상품!

인심에 더하여 정(情)까지!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북구
GWANGJU CITY BUK-GU

광고문의 : 062)650-2099

CMYK